

목포권

환자수 급격 줄고 엔고로 장비 리스료 폭등
목포지역 병·의원들 경영난

올들어 26곳 신규 개원 경쟁 심화도 한 몫

경기 침체로 환자가 감소하면서 목포 지역 일부 병·의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A병원의 경우 올들어 10월 현재 신규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정도 줄었고 B병원 7.5%, C병원은 2.6% 감소하는 등 상당수 병·의원들이 환자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포지역에서 종합병원 1곳, 병원급 6곳, 의원 26곳이 신규 개원했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시급하지 않은 검사나 수술을 기피하거나 늦추고 있어 지역 중소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A 병원 원장은 "검사를 권유하면 당장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을 늦추려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들이 엔고로 이종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이자가 저렴한 엔화를 대출 받았던 목포지역 일부 병·의원들은 최근 엔화 환율이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때 2%선에 불과하던 엔화 대출 이자는 올들어 5%까지 높아져 6억5천만원의 엔화를 빌렸던 모 의료기관은 이자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 감소와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목포지역에서 문을 닫는 병·의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목포지역 10여개 기관·단체들
연말 불우이웃에 온정의 손길

목포지역 기관·단체가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잇달아 열어 불우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농협 목포유통센터(사장 조성수)는 지난 6일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상공회의소, 목포복지재단 등 10개 기관과 함께 '2008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사진>
목포유통센터는 이날 자원 봉사자 100여 명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5천480kg과 쌀 400kg을 홀로사는 노인인 소년소녀가장 300가구와 25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김장김치와 쌀은 목포유통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김장김치 판매행사의 매출액의

1%를 기탁하고 목포YMCA 300만원과 목포상공회의소, 목포에담치과병원 각 300만원 등 각계의 성금 1천600만원으로 마련됐다.
농협목포유통센터 조성수 사장은 "불우 시설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100% 우리 농산물로, 사랑을 나눌고 동시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뜻 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농업인을 위한 행사에 적극 참여해 물심양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날 오후 시청 구내식당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 서로 사랑나눔 봉사회원과 공무원 가족 등 100여 명이 버무린 사랑의 김장김치를 불우이웃 100가구에 15



kg씩 전달했다.
목포지방 해양환경청(청장 김상철)도 8일 오전 청사에서 직원과 한국 부인회, 해운·항만 관련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고 1천여 포기를 사회복지 시설과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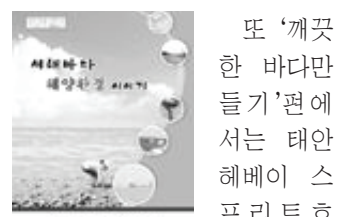
'소외계층에 꿈과 희망을...' 사랑의 음악회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소외 계층을 초청해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소년·소녀가장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등 150여명이 초청돼 목포시교향악단의 연주를 감상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가거도에서 등산 어때요?"

신안군 내년 2월까지 등산로 3개코스 개설
내년부터 국토 최서남단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청정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을 즐기면서 등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최고봉인 독실산(해발 639m)의 능선을 따라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저마다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가거도에 3가지 코스의 등산로를 내년 2월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1코스는 가거도항 이정표→김부연하늘공원→광재 전망대→달뜬목→해뜰목→능선 조망대→방

자연의 寶庫 서해안 '한눈에'

서해안의 해양환경변화를 집대성한 '서해안 해양환경이야기' 백서가 발간됐다.
서해지방해양환경청(청장 김상철)은 지난 2006년 12월 1일 서해청 개청 이후 서해안 지역의 해양환경 현황과 실태, 각종 정책 분석 및 평가, 향후 중장기 목표 및 방향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지방자치단체와 방재업체, 해양환경지킴이, 대학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190쪽 분량의 이 해양환경백서는 제 1장 서해안 지역의 해양환경, 제 2장 자연의 보고 서해안, 제 3장 깨끗한 바다만들기, 부록 등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제 2장 '자연의 보고 서해안'편에는 안도, 목포, 군산, 태안 해양경찰서 관내 어장양식장과 입출항선박, 관광명소 등이 게재돼 서해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깨끗한 바다만들기'편에서는 태안해베어스프리트호오염사고발생과 타르제거 및 교환, 해양오염방재훈련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방재 장비·자재 비축기지 신축운영에 따른 서해안 해양오염방재역량 강화방안 등이 수록돼 있다.
김두호 서해청 해양오염방재장은 "그 동안 추진해 온 해양환경정책을 평가해 앞으로 더 나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면서 "객관적으로 해양환경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는 중요한 정책수립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진도 대파' 165억 규모 브랜드화 사업 선정

진도 겨울대파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브랜드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2009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165억 원이 투입되는 대파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대파 생산 조직을 결성하고 홍보, 경쟁력 제고 및 생산기

신안군, 도초중에 최신 기종 컴퓨터 지원

신안군이 정보화에 소외된 학생과 주민들을 위해 도시지역 학교에 최신 기종의 컴퓨터 및 전산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도초중학교 컴퓨터 실습실에 컴퓨터(모니터 포함) 21대와 프린터 1대, 방·난방기 1대, 책상·의자 21세트, 전기 및 네트워크 시설 등 최신 전산장비를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비금중학교 컴퓨터 실습실에 컴퓨터 22대와 전동 스크린 1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Lists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 Public Broker)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Public Broker)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사/원/모/집' (S/A/M/O/J) featuring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with detailed floor plans and amenities.